

'손의 도시' 전주서 즐기는 특별한 공예여행

시, 공예주간 맞아 17일부터 26일까지 한옥마을 일원서 '전주공예유람' 개최

무료 한지사진 출력 이벤트 '공예유람단' 활동·한복 체험 두배 '공예잇템' 진행

수제작 부흥을 기반으로 '손의 도시(핸드메이드시티)' 만들기 나선 전주시가 지역 공예작가들과 함께 전주만의 수공예문화를 알리는 공예주간 행사를 연다.

전주시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전주공예품전시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만의 공예문화를 이색

적으로 즐길 수 있는 2019 공예주간 행사 '전주공예유람'을 개최한다.

2019 공예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5월의 대표 공예축제로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주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예주간 동안 '전주에서

즐기는 특별한 공예여행, 전주공예유람'을 주제로 최근 개관한 전주공예품전시관과 40여곳의 공예마켓·공예 체험공방·무형문화재 명인공방 등 다양한 공예 관련 문화시설들과 함께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공예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공예주간 기간 전주한옥마을에서는 곳곳을 누비며 공예주간을 홍보하고 전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보물인 전주한지를 활용해 무료 한지사진 출력 이벤트를 진행할 '공예유람단'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 한복에 부채와 지승가방, 지우산 등 전주의 전통공예품을 더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복체험 두배로 즐기 '공예잇템'도 진행한다.

여기에, 한옥마을 카페의 일회용품 식기 대신 아름다운 공예 식기를 활용하는 '카페 식기 챌린지', 한옥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체험공방 및 마켓 등을 소개하는 '크래프트 스톱' 등 공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황금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이처럼 우수한 공예 문화 콘텐츠를 2019 공예주간 행사를 바탕으로 공예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공예의 가치와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사)대한드론축구협회는 14일 한국모형항공협회와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의 국내대회 활성화와 국제대회 시범경기 추진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發 드론축구 세계화 '속도'

드론축구협. 한국모형항공협회와 국제대회 활성화 협약

한국모형항공협회 산하에 국제항공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된 드론축구 국제대회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드론축구 세계화가 가속도가 붙게 됐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협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4일 한국모형항공협회(회장 박찬덕)와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의 국내대회 활성화와 국제대회 시범경기 추진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한국모형항공협회 내 드론축구 분과를 설치하고, 드론축구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추진하는 등 드론축구 국제대회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 기관은 국내·외 드론축구 대회를 공동 개최하거나, 모형항공스

포츠 국제대회 개최 시 시범경기로 드론축구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드론축구 전문 인력 양성 및 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25년 드론축구 세계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드론축구의 국내 저변확대를 넘어 국제화를 위해 한국모형항공협회와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국제항공연맹(FAI) 모형항공기위원회(CIAM) 국제회의에서 '드론축구 규정'이 채택됐다.

이는 향후 열리는 항공스포츠 국제대회에서 드론축구를 시범경기 종목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향후 시범경기 종목을 넘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더 나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에서도 드론축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도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첫걸음으로 시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연맹(FAI) 주최 '드론레이싱 대륙간 마스터즈 국제대회'에서 드론축구가 국제대회 첫 시범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전주시가 초경량 탄소소재와 최첨단 ICT산업과 드론기술을 융합해 만든 드론축구가 국제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드론축구 전문 인력 양성과 선수 발굴 및 육성에도 힘을 쏟아"고 말했다.

한편, 112개국에 가입한 국제항공연맹(FAI)은 1905년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승인하에 설립돼 국제 항공 스포츠 관련 각종 경기대회를 승인·주최하고, 종목별 항공스포츠 경기규정을 제정·보급하는 기구다. 국내에서는 (사)대한민국항공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사)대한민국항공회에 한국모형항공협회가 단체로 가맹되어 있다. /송효철 기자

송하진 도지사, 2심서 벌금형

70만원 선고받아 '직위 유지'

자신의 업적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주교법 전주재판부 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취 평가를 작인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은 본 사람은 700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페이스북 등 자신의 업적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지 내용은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

약의 시대를 만들겠다" 등이다. 검찰은 송 지사가 잼버리 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발송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제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86조 5항에도 적용된다고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성추행 은폐시도 논란

'고발 접수 안해'... 기관측 '성 인지 감수성 부족해' 강등까지만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이 직원 A씨의 성추행 사건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은폐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추행 등을 일삼는 A씨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 12월 취임식을 치른 후 직원 면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조 원장은 인사 담당부서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추행과 폭언·폭력 등의 정황이 포착돼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A씨에 대해 강등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는 타 부서로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통상진흥원은 A씨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접수에 대해선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맞다"면서도 "형사처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석훈 기자

'상가밀집' 인후2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전주시 인후2동 상가·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가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시는 인후2동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총 3억원을 투입해 인후2동 공영주차장(덕진구 거북비우로 142)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후2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363㎡를 매입한 상태다.

시는 사실상 용역을 거쳐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철골조립식주차장 1동(주차면수 15면)을 건립하고 보안등과 자전거 보관대, 일부 화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한옥마을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지난 2월 매입을 완료한 만성지구 주차장용지(주5)에 대한 사실상용역을 추진중으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정부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주시가 전주발전을 이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나섰다.

김양원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 10여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지원국장과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산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 7개 부처 간부공무원을 차례로 만나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대상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영을 건의했다.

시가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전주동물원 생활자원보전시설 설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증설 △다공성 소재산업 솔루션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11개 사업이다.

시는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31일까지 각 부처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집중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오는 16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 설득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ISI 전주/스마트팜 프로그램

전주시가 지역 수요 맞춤형 ICT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과 ICT기술 융합 활성화에 나섰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 이하 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와 함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ICT표준기술을 확산시키고 ICT기술 융합 추진을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ISI 전주/스마트팜 프로그램'을 한국전통문화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생명 SW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들의 융합 사례 발표와 함께 국내 ICT표준전문기관인 TTA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인공지능,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등 ICT 핵심기술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주택가 돌며 상습 절도 40대 구속

빈집과 차량에서 금품과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 혐의로 A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 45분경 전주시내 주택에 침입해 통장과 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1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빈집에 침입해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동안 14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유리문을 벽돌로 깨는 수법을 사용, 총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개월간 24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137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석훈 기자

만취한 채 신체 노출 50대 검거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영유관 혐의로 A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오후 7시 13분경 전주 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행각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석훈 기자

캠핑장서 선글라스 훔치다 멀미

캠핑장에서 선글라스를 훔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7분경 익산 시내 모 캠핑장에서 선글라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

전주시, 기초지자체 최초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나선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민원응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행사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적극 보호하고, 감정노동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 제공 및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소진된 감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소속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및 보호체계 구축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적극 이행 △유형별 민원응대 매뉴얼 제공으로 정신적·육체적 손실 최소화 △마음건강 지킴 및 회복을 위한 공간·시설 마련 △감정노동 피해 회복과 법적 조치 지원 및 이에 따른 불이익 금지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시민공감 확산 등이 6대 기본 지침으로 설정됐다. 또한 부록으로 감정노동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 △스트레스 자기진단법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 완화법 △관련 기관 안내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감정노동 직원들은 건강장애 예방 교육을 받고 휴게실 등 휴게공간이 개선되며, 마음건강 지킴 프로그램 운영 등 감정노동 피해 발생시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는 심리상담·치료 제공, 법적 조치 지원, 민원 현장에서 감정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대 매뉴얼이 소개되고, 폭언·폭력·성희롱 등 민원 유형별로 대응절차 및 멘트 예시도 안내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작년 10월부터 가이드라인 수립 TF팀을 구성하고 실무회 및 그를 간담회, 관계 기관 협의, 전문가 참여 세미나, 명칭 내부 공모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감정노동 보호 교육을 통해 감정노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제안과 사업들을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시민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노동보호 안내문을 포스터와 소형 홍보물 형태로 민원 접점 부서와 민원대에 부착하고 시민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감정노동과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